

Text A 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1 번 문제에 모두 답하십시오.

Text A

다음은 하효길의 <<현장의 민속학>> 가운데 ‘귀신과 도깨비에 대하여’의 일부입니다.

우리 나라 고대소설이나 설화 중에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 조선조 때의 학자 이익이나 김시습 등은 귀신을 음양설로 해석하였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천지간에는 기가 가득 차 있고 곧 그 기가 정령이며, 음의 정령이 백이고 양의 정령을 혼이라 이르며 이 혼백이 합하여 인간의 정신과 근력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죽으면 음기가 유산되는 것인데 이 기가 유산하여 오르면 신이 되고 내리면 귀가 된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한 개념 속에 포괄하는 귀신을 신과 귀로 구분하여 음양설로 해석하려 하였다. 5

우리 말에 ‘신출귀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귀신은 인간과는 달리 자유자재로 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인간은 육체적인 제한으로 그 능력이 아주 한정되어 있으나, 귀신은 그 육체를 떠난 기이기 때문에 능력에 한계가 없으며, 또한 인간과 같은 성정을 지녀서 인간을 도와 주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한다. 이익의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보면 귀신도 사람과 비슷해서 사람만이 귀신을 10
꺼릴 뿐만 아니라 귀신도 사람을 꺼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귀신은 사람의 기가 허약한 틈을 타서 침입하며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속임수에 빠진다고 하였다.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그 기와 혼이 떠서 퍼져 있다가 하늘에 오르게 되면 신이 되고, 지상에 남게 되면 귀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생전에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이 죽으면, 그 혼령이 15
원한 때문에 승천하지 못하고 원령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경우 혼령은 대체로 악귀로 변하여 인간을 해치게 된다고 믿는다. 이 악귀로 변한 혼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해치게 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선신이나 악귀나 모두 사람이 죽은 후의 그 혼령이 근본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원통하게 죽거나 비명에 죽었을 경우, 그 가족은 굿이나 제를 지내어 죽은 혼령의 원한을 풀어주어 저승에 편안히 가도록 한다. 그래서 혼령을 극락으로 천도해 주기 위해서 49재를 지내기도 20
한다.

그러나 생전에 순조롭게 살다가 저승으로 들어간 혼령은 선령이 되고 여기서 선령은 격상되어 신격이 부여되고, 이 중에서도 왕, 장군, 학자 등 특별한 인물은 국가 전체 또는 어느 일정 지역인 마을이나 높은 산 등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귀신에게 친근감보다는 경외감을 가지며, 따라서 그 위력에 의해 재화를 25
면하고 복을 얻고자 귀신을 숭상하여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예로부터 천신, 산신, 사직신 등에 제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민간 신앙에서 보면, 이러한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뿐만 아니라 암석이나 수목에도 정령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어 이를 함부로 깨뜨리거나 베지 않으며, 이 바위나 수목을 신앙하기도 30
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천신 등 고급신에서부터 하급의 정령에 이르기까지 신을 믿고 신앙한다.

도깨비는 우리 인간과 접촉하여 심술을 부리고 때로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등 장난을 심하게 하는 일종의 허깨비이다. 우리 주변에서 도깨비에 대한 일화를 수없이 들을 수 있는데, 특히 사람과 관계된 도깨비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다. 도깨비에 대한 설화나 일화를 볼 때 도깨비는

인적이 끊긴 빈 집, 특히 나무 등이 우거지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아주 어둡고 음습한 곳에 살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밝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고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는 등 어둡고 음산할 때만 나타난다. 35

도깨비는 인간의 혼령이 변화된 것이 아니어서 그 근본이 애매하지만 설화나 일화를 통해 보면 곤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니, 밤길에 씨름을 청하고 귀찮게 해서 칩덩굴로 나무에 꼬꽂 묶어 놓거나 자기의 허리띠로 꼬꽂 묶어 놓은 후 다음 날 아침에 가 보면 거기엔 못쓰게 된 헌 빗자루나 부엌에서 불을 쬐 때 사용하는 헌 부지깥이가 묶여 있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또 미녀로도 잘 나타나 밤길 가는 젊은이를 곤잘 골탕먹이기도 한다. 미녀와 하룻밤을 잘 지냈는데 깨어보니 헌 부지깥이나 빗자루를 안고 있었다는 식이다. 40

도깨비의 성정을 보면, 장난기가 가득한 심술로 인간을 골탕먹이기를 좋아해서 도깨비에게 인간이 속아 골탕을 먹거나 손해를 당해 화가 나 있는 걸 보고는 즐거워하기도 한다. 그리고 씨름을 좋아해 사람들에게 씨름을 걸어오기도 하고 가무를 즐기는 등 낙천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 가고 갚을 줄도 아는데 건망증도 대단하여 갚은 돈을 계속 갚는 우스운 면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오기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고 은혜를 끼쳐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한다. 45

도깨비는 신통력을 지녀서 하룻밤 사이에 연못을 평지로 메우기도 하고, 눈에 돌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는가 하면, 다시 그 돌을 다 치우고 개똥, 쇠똥을 가득하게 쌓아 놓는 등 자유자재로 조화를 부린다. 인간은 도깨비의 이런 심술궂은 조화를 역이용하여 부자가 되는 설화가 많다. 50

도깨비는 또한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도깨비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 도깨비 방망이를 구하게 되면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귀신은 인간에게 재화를 입게 하는데, 도깨비는 인간에게 재복을 주고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인간에게 꿈을 갖게도 하는 것이 귀신과 다른 점이다. 55

신통력을 가진 도깨비도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으니, 말머리이다. 그런데 귀신도 북송아나무와 엄나무 등 접근을 못하는 것이 있어 도깨비와 상통되는 점이 있다.

Text B 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2 번 문제에 답하십시오.

Text B

다음은 마그누스 올라프손의 <아이슬란드의 민담>의 일부입니다.

유사 이래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특별한 초자연적 존재들과의 신기한 만남에 대한 여러 환상적인 이야기를 지어내어 왔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민담은 셀 수 없이 많은 환상적인 영적인 존재들과 그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 내려오는 자연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프들은 북유럽과 게르만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존재로서 거대한 마법의 힘을 가진 아름답고 예민한 영생의 존재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의 엘프들은 다른 종으로 보아야 합니다. 5

일반적으로 홀두포크(숨어 있는 사람들)라 불리는 아이슬란드의 엘프들은 마법의 바위나 절벽에 일반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가축을 키우고, 건초를 베고, 고기잡이를 하고, 열매를 따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닳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러한 닳은 점들 때문에 아이슬란드 엘프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일반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끼리만 새해 전날이나 하짓날 밤 등 특별한 경우에 볼 수 있도록 합니다. 10

아이슬란드 엘프들은 극도로 그들의 보금자리를 보호하려 하고 누군가 귀찮게 하면 크게 보복합니다. 실제로도 엘프들이 자신의 땅을 지키려고 하는 난폭함이 기록된 이야기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에도 엘프들이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마법의 바위나 절벽은 대부분 손상을 입히지 않고 피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5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2015년에 도로 건설 계획에서 가울가흐라운의 용암대지 한 가운데에 마법의 지점을 통과해서 계획한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장비들이 고장나고 여러 인부들이 사고를 당하는 등의 일로 실패가 계속되자 건설 회사는 엘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점을 우회해서 도로를 건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들 커다랗고 멍청하고 욕심 많지만 가끔 착하고 똑똑하기도 한 모습으로 묘사되는 낮과 밤의 트롤은 아이슬란드의 민담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프들처럼 트롤들도 자기들 중 누군가 다치면 크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트롤이 필요로 할 때 도와주면 아주 큰 보상을 해 주는 친구들이죠. 20

전반적으로 보면 엘프 친구들처럼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이는 친구들은 아니지만 트롤들은 괴상한 마법능력과 끔찍한 주문을 쓸 줄 아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지능이 낮아서 인간들은 쉽게 주문에서 벗어나곤 하죠. 25

아이슬란드 트롤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아이슬란드 내륙의 바위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작위로 주문, 마법, 물약으로 꼬드겨 데려오거나 납치해 오곤 합니다. 또한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을 훔쳐오거나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트롤 이야기들을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자주 들려줍니다.

대부분의 트롤은 밤에만 다닐 수 있고 햇빛을 받는 즉시 바위로 변해 버립니다. 다양한 모양의 거대한 아이슬란드의 바위들이 햇빛 앞에서 공포에 질린 트롤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따라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 서쪽의 스케수호른(암컷 트롤 봉우리)과 아이슬란드 북쪽의 트웰라스카르드(트롤의 길) 등의 지명이 있습니다. 30

아이슬란드에 크리스마스 남자들이 온다는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13명의 형제들은 트롤의 자식들입니다. 산 속 깊은 동굴 속에 어머니인 그릴라와 아버지인 레팔루디, 그리고 아이를 잡아먹는 크리스마스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죠. 35

원래 아이슬란드의 이 크리스마스 남자들은 범죄급의 장난들을 저지르는 존재들입니다. 시골의 마을로 숨어들어가 훔치고 괴롭히고, 약탈하는 이들 각각은 주특기인 장난을 따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문을 쾅 닫는 사람”은 어두운 밤에 문을 쾅 닫기를 좋아하고, “소시지 도둑”은 서까래 위에 숨어 있다가 훈제 소시지를 낚아챩니다. 그리고 “촛불 도둑”은 예전에는 먹을 수 있었던 동물 기름으로 만든 촛불을 훔치기를 좋아합니다. 40

하지만 오늘날에는 크리스마스 남자들은 새로운 전통으로 산타클로스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전의 13일 동안 매일 밤 13명의 산타클로스들이 하나씩 아이들의 방 창틀의 신발 안에 선물이거나 썩은 감자를 놓고 갑니다. 이 때 그 아이가 일 년 동안 얼마나 말을 잘 들었는지에 따라 무엇이 놓일지 결정됩니다. 45

아이슬란드의 유령들은 아주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세 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죽음에서 스스로 되돌아 온 사람들, 주술에 의해 깨어난 좀비들, 그리고 특정 사람이나 가족들을 따라다니는 아주 악독한 “추적자”가 있습니다.

유령의 생김새는 인간일 적의 형태가 어떠했는지와 죽음의 원인, 왜 아직도 이승을 떠돌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50

대개 유령은 사후에 갈 곳을 찾지 못한 길 잃은 영혼들입니다. 유령들이 이승에 계속 머무는 이유는 사랑했던 사람의 애도 때문일 수도 있고 이승에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령은 탐욕 많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이승에 남겨진 것들에 대해 심하게 애착을 보이는 경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영웅전설에 따르면 덴마크의 해럴드 블루투스 왕이 아이슬란드를 침략하기로 계획을 세울 때 마법사를 고래로 변신시켜 섬의 약점들을 알아보도록 시켰다 합니다. 하지만 고래로 변신한 마법사가 해안으로 4차례나 접근하려 시도했지만 거대한 육지의 영혼들이 마법사를 바다로 밀어냈습니다. 이 4개의 영혼들이 바로 대지신이고 아이슬란드의 수호신들입니다. 55

동쪽의 용, 북쪽의 그리핀, 서쪽의 황소, 남쪽의 거인은 각자 맡은 구역을 지키는 아이슬란드의 수호신들입니다. 오늘날 이 수호신들은 크게 존경받으며 아이슬란드의 문장과 아이슬란드의 크로나 동전에 새겨져 있고, 아이슬란드의 영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존재들을 지켜주고 번영하게 해 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60

BLANK PAGE

Permission to reproduce items where third-party owned material protected by copyright is included has been sought and cleared where possible.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by the publisher (UCLES) to trace copyright holders, but if any items requiring clearance have unwittingly been included, the publisher will be pleased to make amend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To avoid the issue of disclosure of answer-related information to candidates, all copyright acknowledgements are reproduced online in the 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ducation Copyright Acknowledgements Booklet. This is produced for each series of examinations and is freely available to download at www.cambridgeinternational.org after the live examination series.

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ducation is part of the Cambridge Assessment Group. Cambridge Assessment is the brand nam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UCLES), which itself is a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